

해외 페스트 산발적 발생에 따른 선제적 대응조치 강화

- 중국(3명, 8월), 몽골(2명, 6월·8월) 등 풍토병 지역에서 산발적 발생
- 림프절 페스트는 사람 간 전파가 드물고 발생 시 치료제 등 대응역량 충분
- 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으나 선제적 조치로 몽골 검역관리지역 추가
- 국외 보건당국 및 세계보건기구(WHO)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상황 예의주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3년 6~8월에 중국 및 몽골에서 페스트 확진환자 5명의 발생이 보고됨에 따라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몽골을 페스트 검역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8월 29일부터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기존) 중국, DR콩고, 마다가스카르, (추가) 몽골

현재까지 국내에서 페스트 환자나 페스트균에 오염된 설치류가 확인된 적은 없으며, 최근 5명의 페스트 환자가 보고된 중국 내몽골자치구* 및 그 인접국가인 몽골은 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풍토병 지역으로, 두 국가 모두 확진사례 외 추가 확진자 발생은 보고되지 않았다.

* 내몽골자치구 발생현황: ('19년) 4건 → ('20년) 1건 → ('21년) 1건 → ('22년) 0건 → ('23.8월) 3건

또한, 올해 국외 발생 보고 건은 모두 림프절 페스트로 다른 페스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파 가능성* 및 치명률**이 낮고 국내 상용화된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며, 감염 후 적시 치료 시(2일 이내) 높은 회복률을 보인다.

* 전파 가능성 : 대부분 사람 간 전파는 매우 드물지만 폐 페스트는 비말 통한 사람 간 전파도 가능

** 치명률 : 림프절 페스트(5~15%), 폐 및 패혈증 페스트(30~50%)

*** 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 겐타마이신(gentamycin), 독시사이클린(doxycycline), 클로람페니콜 (chloramphenicol) 등

현재까지 국외 페스트 발생에 따른 종합적인 위험도는 낮은 것으로 파악되나, 최근 중국 및 몽골 여행객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페스트 검역관리국가에 몽골을 추가하고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또는 Q-CODE)를 통해 유증상자 감시 등 강화된 검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국외 보건당국 및 세계보건기구(WHO)와 긴밀히 협력체계를 가동해 국외 페스트 발생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만일 페스트 균에 감염되더라도 조기에 발견해 항생제를 투여하면 치료가 가능하고, 국내 환자 발생에 대비한 항생제가 충분히 비축되어 있는 등 페스트 환자관리와 통제를 위한 방역 대응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국외 페스트 산발적 발생상황에 대해 지나친 불안보다는 예방수칙 확인과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민들께서는 페스트 감염 예방을 위해 발생지역 방문 시 쥐나 쥐벼룩, 마뚝과 같은 야생동물(사체 포함) 접촉을 피하고, 발생지역 여행 후 7일 이내 페스트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나 보건소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고열, 권태감, 두통, 근육통, 오심, 구토, 통증을 동반한 림프절 부종 등

아울러, 의료진의 경우 “페스트 의심환자 진료 시 검역관리지역 입국자* 여부를 잘 확인하여 조기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살피고, 신속한 환자 신고에도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의료진 대상으로 페스트 검역관리지역 해외여행력 정보 제공 중

<병명 표기 협조요청>

‘흑사병’은 과거 페니실린 개발 전 항생제가 없었던 시기에 감염 시 신체말단이 괴사하면서 피부와 근육이 검게 변하는 ‘검은 죽음의 병’이란 뜻으로 통용된 용어로, 현재는 상용화된 항생제로 치료 가능한 감염병입니다.
향후 언론보도 시 법정감염병 상 공식 명칭인 ‘페스트(Plague)’로 표기 부탁드립니다.

- <붙임> 1. 페스트 질병 개요
 2. 페스트 발생 현황
 3. 페스트 발생지역 여행 시 예방 및 행동수칙

담당 부서 <주관>	감염병위기대응국 신종감염병대응과	책임자	과 장	여상구 (043-719-9100)
		담당자	연구관	이수연 (043-719-9130)
			역학조사관	이상은 (043-719-9111)
담당 부서 <협조>	감염병위기대응국 검역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종하 (043-719-9200)
		담당자	사무관	박진욱 (043-719-9218)
			역학조사관	박한울 (043-719-9213)

붙임 1 페스트 질병개요

구분	질병정보	
정의	페스트균(<i>Yersinia pestis</i>)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질환	
법정감염병	제1급(질병코드: A20)	
병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ersiniaceae과에 속하는 운동성 및 아포가 없는 그람음성 간균 - 통성 혐기성 - 생물위해정보: 고위험병원체, 제3위험군, 생물안전밀폐등급 Biosafety level 3(BL3) - 감염력: 흡입 감염은 100~500개 균으로 발병 가능, 감염된 벼룩에 물린 경우 약 25,000~100,000개의 페스트균이 피부를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짐 	
병원소	사람과 200종 이상의 포유류	
잠복기	1~7일(페 페스트는 평균 1~4일로 상대적으로 짧음)	
감염경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계 → 사람) 감염된 쥐벼룩에 물려 감염되거나, 감염된 동물 혹은 이들의 사체를 취급하면서 감염될 수 있음 - (사람 → 사람) 페스트 환자가 배출하는 화농성 분비물(림프절 고름 등)에 직접 접촉, 페 페스트 환자의 감염성 호흡기 비말을 통해 전파 	
임상증상 임상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림프절 페스트) 통증이 있는 림프절(buboes) 부종과 고열, 권태감이 특징이고 두통, 근육통, 오심, 구토 등 비 특이적 증상 발생 - (폐 페스트) 대개 심한 발열, 두통, 피로, 구토와 현저한 쇠약감으로 시작되어, 기침, 호흡곤란, 흉통 및 수양성 혈담을 동반한 중증 폐렴으로 진행되어 사망 - (패혈증 페스트) 발열, 오한, 극심한 전신 허약감, 소화기계 증상 등을 보이다 다발성 장기 부전, 출혈, 피부 괴사, 쇼크 등으로 사망 	
치명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림프절 페스트는 50~60%, 폐 페스트와 패혈증 페스트는 30~100% 정도 - 적절하게 치료할 경우 림프절 페스트는 5~15% 이하, 폐 페스트 및 패혈증 페스트는 30~50% 	
진단검사 기준	검체(혈액, 가래, 기관지세척액, 림프절흡인물 등)에서 <i>Y. pestis</i> 분리 동정	
치료	페스트 적정 항생제* 선택 치료 가능 * 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 겐타마이신 (gentamycin), 독시사이클린 (doxycycline), 클로람페니콜 (chloramphenicol) 등	
예방	일반적 감염예방 수칙 준수, 위험지역 방문 시 벼룩이나 호흡기 환자와의 접촉 주의	
관리	발생 신고	위험지역 방문 후 입국 후 7일 이내 발열 등 증상 발생 시 ☎ 1339 또는 보건소 문의 후 안내받음
	환자 관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서 격리입원 치료
	접촉자 관리	감염된 벼룩에 물리거나 확진환자 접촉 후 1~7일 동안 모니터링, 의심증상 시 의심사례에 준한 조치
	환경 관리	환자에게 사용한 기구 및 주변 환경 소독, 관리
국외발생	발생 국가	오세아니아를 제외한 전 대륙에서 발생하며, '90년대 이후로는 주로 아프리카에서 발생, 가장 많은 발생이 있는 지역은 마다가스카르, 콩고민주공화국, 페루 등임
	발생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세계적으로 '10~'15년, 총 3,248명(사망 584) 발생했으며, 이 중 92%가 DR 콩고, 마다가스카르에서 발생 - '21년 1월-6월, DR콩고 이투리주 지역 페스트 의심환자 117명(사망 31명) 발생 - '21년 8월-9월, 마다가스카르에서 페페스트 환자 19명(사망 6명) 발생 - '22년 3월-8월, DR콩고 이투리주에서 선페스트 의심환자 596명(사망 8명) 발생 - '23년 8월 기준, 중국(3명), 몽골(2명), 미국(1명) 림프절페스트 환자 발생
국내발생	페스트 환자나 페스트균에 감염된 설치류가 발견된 적이 없음	

붙임 2 국외 페스트 발생 현황

□ 발생 현황

- '90년대 이후 대부분 사례는 아프리카에서 보고되었으며, 콩고민주공화국과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최근까지 지속발생, 그 외 지역에서는 산발적 발생
 - 콩고민주공화국*과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최근까지도 환자 발생이 보고중이나, 해당 국가들의 감시체계 불안정으로 정확한 현황 파악은 어려움
 - * 콩고민주공화국: 2022년 1년간 638건 발생, 14명 사망
 - ** 마다가스카르: 2021년~2022년 유행시즌 기간 내 134건 발생, 32명 사망
 - 콩고민주공화국과 마다가스카르를 제외하고 '19년 이후 페스트 발생이 보고된 국가는 중국*, 몽골, 미국이며, 각 국가에서 연 10건 이내 산발적 발생 보고 중
 - * (2019년) 5건 → (2020년) 2건 → (2021년) 1건 → (2022년) 2건 → (2023년) 3건
 - * 중국은 주로 네이멍구에서 발생이 보고됨
 - 그 외에는 '13~18년 기간 동안 우간다, 탄자니아,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페루, 볼리비아에서 페스트 발생이 보고되었으나, 최근 5년 이내 발생보고 없음

붙임 3 페스트 발생지역 여행 시 예방 및 행동수칙

◆ 페스트 발생지역 여행 시 예방 및 행동수칙



시기	예방 수칙
일반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비누로 손씻기 또는 알코올 소독제로 손소독)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기 - 기침, 재채기 시 옷소매 이용하고 기침, 재채기 후 손 위생 실시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여행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스트 발생 지역 확인 및 여행 자제
여행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리카 등 발생지역에서 쥐나 쥐벼룩, 야생동물, 이들의 사체 접촉금지 - 청결한 거주 환경 유지(쥐 등 설치류 서식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 조성, 쥐벼룩과의 접촉을 줄이도록 주변 환경에 곤충살충제 등 살포) - 발열 기침, 피가 섞인 가래, 두통, 구토 등 페스트 의심 증상을 가진 사람과의 접촉 금지 - 야외 활동 시 긴팔과 긴바지 착용 권고 - 덜 익힌 설치류 등 야생동물 섭취 금지
입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스트 발생국가(지역)* 방문 후 증상이 있을 경우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 제3국을 경유하여 입국한 입국자 포함 ※ 페스트 검역관리지역: (기존) 중국, DR콩고, 마다가스카르, (추가) 몽골(8.29)
여행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국 후 감염병별 잠복기 이내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1339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여 안내받기

2023.8.25. 질병관리청



**중국몽골 등 페스트 풍토지역 여행자는 주목,
이것만은 꼭 주의해주세요!**

* 페스트 풍토지역: 중국(네이멍구 등), 몽골 및 몽골 인접국가

페스트 발생지역 여행 중이라면?

 <p>벼룩, 야생동물(쥐, 마못, 산토끼) 등 접촉 및 섭취 금지</p>	 <p>야외활동 시 긴팔과 긴바지 착용, 손씻기 등 개인위생 준수</p>
--	--

페스트 발생지역 여행 후에는?

 <p>입국 후 잠복기(1~7일) 동안 자신의 건강상태 모니터링</p>	 <p>의심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즉시 연락</p>
--	---

페스트 의심증상 ▶ 통증이 있는 림프절 부종, 고열, 권태감, 두통, 근육통, 오심, 구토 등